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를 소개하고, 디오티마는 소크라테스 역할을 대신하고, **소크라테스는 아가톤을 대신한다.**

디오티마 (제우스의 존경을 받는다)  
디오티마는 순전히 허구적인 인물로 인식

**플라톤이 이 예언자를 소크라테스의 대역으로 설정한 이유?**

- = 그녀의 등장은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에로스에 대한 연설을 계속 전개하게 해준다.
- = 소크라테스 자신은 지식의 탐구자로, 무지의 가면을 쓴 '**아무 것도 모르는 자**'로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 = 그리고 모르는 자임을 자처하는 그가 유일하게 알고 있다고 말한 '**사랑에 관한 일**'의 중요성과 권위를 높여 준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를 소개하고, 디오티마는 소크라테스 역할을 대신하고, 소크라테스는 아가톤을 대신한다.

디오티마를 도입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소크라테스 자신이 직접 에로스에 대한 찬양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에로스는 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신적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디오티마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한다면 평범한 소크라테스로 만족할 수 있어서 향연을 이해할 때 불편함이 없어진다.

= 디오티마의 에로스 이론은 소크라테스 내지 플라톤의 견해를 대변하는 형식

= 디오티마 등장은 소크라테스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의미를 포함하게 한다.

신적인 것, 겸손의 표현, 시대의 위협으로부터의 도피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1. 에로스의 성격 : 중간자로서의 에로스

#### 에로스의 존재

소크라테스 = 에로스는 위대한 신이고 아름답다. (아가톤의 주장)  
디오티마 = 소크라테스 주장 논박 (소크라테스가 아가톤을 논박할 때 그 논변)

= 에로스는 비록 아름답지도 않고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추하거나 나쁘지도 않다.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추하고 나쁜 것은 아니다.

## 디오티마와 스크라테스의 논의

### 1) 중간적인 앎 – 옳은 의견

- 옳은 의견은 사리 분별과 무지 사이에 있는 것

디오티마는 중간적인 것의 예시 제시 : 지혜롭지 않은 것이 곧 무지는 아니다.  
지혜(Sophia)와 무지(amathia) 사이에 옳은 의견이 있다.

- 옳은 의견은 근거를 대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식이 아니고, 있는 것(to on)과 만난다는 점에서 무지는 아니다,

- 중간자로서의 에로스는 앎의 측면에서 옳은 의견과 같은 것

(에로스가 애지자임을 밝히는 논증에서 더 분명하게 이해된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1) 중간적인 앎 - 옳은 의견

#### 중간자로서의 에로스

에로스는 단순히 성적인 욕망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욕망을 암시한다.

= 욕망은 대상과 상호 관계적으로 규정된다.

= 각 욕망은 그 자체로서 단순히 자신의 본래적인 대상에 관계한다.

= 상호관계적인 욕망으로서의 에로스는 그것이 관계하는 대상의 가치를 갖는다.

좋은 것에 대한 욕망은 좋은 욕망이고, 그 반대는 나쁜 욕망 - 그러나 추상적 관점에서는 욕망은 좋지도 나쁘지도,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신적이지도, 가사적(可死的)이지고 않는 '중간자적'인 것

= 중간자는 중립적인 것을 모두 갖는 대신에 대립적인 어느 쪽도 갖지 않는다.

중간적인 성격은 예를 들어 갈등은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인데,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 그것의 가치는 개별적인 상황에서 만족의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 논의

### 2) 신령(다이몬)으로서의 에로스

에로스는 신이 아니다.

에로스는 좋고 아름다운 것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욕망한다고 동의한다.  
아름답고 좋은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할 수 없다.

- 에로스 = 불사자와 가사자의 중간에 위치한 신령(daimon)이다.  
다이몬은 신들보다 등급이 낮은 초자연적 존재자들에게도 사용된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는 다이몬을 '신', '신들의 자식들'로 취급한다.
- 디오티마 = 다이몬을 신과 사람(불사자와 가사자)의 중간자로 취급한다.  
= 에로스를 다이몬으로 취급하는 이유 = 에로스를 의인화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1) 다이몬의 기능

다이몬은 인간들의 것을 신들에게, 신들의 것을 인간들에게 해석해주고 옮겨 준다.

- 인간들로부터는 간구와 제사
- 신들로부터는 명령과 제사의 대가를 해석해주고 옮겨 준다.
- = 양자 사이를 메워 주어 전체가 그 자체로 자신과 결속되게 해 준다.  
(제사, 의례, 주문, 예언, 주술에 관한 사제들의 기술도 이것을 통해 움직인다)
- 신이 인간과 직접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몬을 통해서 인간과의 교류한다.  
이런 일들에 관해 지혜로운 자 = 신령한 사람. 현인(Sophos) = 신령
- = 에로스는 이 많은 다종다양한 신령들 중의 하나
- 일반 기술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 = 재주꾼 (banausos).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2) 에로스 탄생의 신화

신화는 에로스의 성격들(결핍, 가지려는 욕망, 지혜에 대한 사랑)을 구상화 하여 보여준다.

#### ① 에로스의 부모

아프로디테의 생일 축하연에서 만난 포로스와 페니아 사이에서 에로스 출생  
이런 이유로 에로스가 아프로디테의 동반자로서 그녀에게 봉사하는 시동이 된 것이다.

에로스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름다운 존재인 아프로디테 생일을 계기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2) 에로스 탄생의 신화

### ② 에로스의 이중성

에로스는 페니아(결핍)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결핍상태에 있고, 부드러움이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고, 더럽고 맨발로 떠돌아다니며, 땅바닥에서 하늘을 이불삼아 잔다.

포로스(풍요, 간계)의 성격도 이어받아서,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획득하려 계책을 꾸미기도 하고, 용감하며 현명한 지혜를 평생 탐구하는 대단한 험잡꾼이자, 마술사이며 소피스트

- 에로스는 본래 불사적인 존재도 가사적인 존재도 아니다. 방도를 잘 갖추고 있어서 전성기를 누리며 살 때가 있고 방도가 없어서 죽어가는 때가 있다.
- 다이몬으로서의 에로스 에 대한 디오티마의 묘사는 소크라테스를 강하게 연상시킨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3) 애지자(愛知者philosophos)로서의 에로스

#### 신령인 에로스가 애지자임을 보여주는 디오티마의 논증

가. 신은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다. ....신은 이미 지혜로운 자다

나. 그렇다고 에로스가 무지한 자인 것은 아니다. ...무지한 자는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다.

다. 에로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 지혜를 사랑하는 한에서 지자와 무지한 자의 중간자이다.

- 애지자로서의 에로스는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주체  
소크라테스(아가톤)가 에로스를 아름다운 신이라고 한 것은 에로스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3) 애지자로서의 에로스

#### ① 무지(無知)의 지(知)

무지한 자 = 아름답고 훌륭한 자도, 분별 있는 자도 아니면서 자신을 만족스럽게 여긴다.  
자신이 뭔가를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욕망하지 않는다.  
[변명] --- 최악의 무지는 자신이 현명하지도 않은데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

애지자의 자격을 얻는 것은 자신의 무지(無知)에 대한 지(知)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런 점에서 모르는 자임을 자처하는 소크라테스와 일치한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2. 에로스의 목적 : 행복

질문 -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

- 소크라테스 : 에로스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주체로서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면 **그것이 인간에게 무슨 쓸모가 있는지**  
**즉,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를 묻는다**
- 디오티마 :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놓고 우리가 좋은 것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되물으며 답을 이끌어낸다.  
**= 좋은 것을 소유한 자는 행복하게 된다. 즉, 좋은 것을 얻는 목적은 행복 해지기 위한 것이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2. 에로스의 목적

에로스의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에우다이모니아) = 일반적으로 헬라스 사상에서 인생의 총체적인 목적으로 여겨지며,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조건으로 여겨진다.

전통적인 헬라스 사상에서 성공, 번영 가족의 평안과 결부되며 헬라스 철학자들에 의해서 흔히 덕(arêtē)과 동일시된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2. 에로스의 목적

#### 1) 아름다운 것 = 좋은 것

질문 :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디오티마가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것.

= '좋은 것' 과 '아름다운 것'은 같은 뜻의 말로 사용된다.

좋은 것은 어떤 것이든 아름답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모두 좋은 것이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3. 에로스의 정의 : 좋은 것을 늘 소유하려는 욕망

질문 : 이 바람과 이 사랑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된 것, 모두가 다 좋은 것들이 자신들에게 늘 있기를 바란다고 생각한가, 아니면 어떤 것인가?

= 모두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질문 : 소크라테스, 실로 모두가 똑같은 것들을 늘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어떤 자들은 사랑하는데 어떤 자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에 대한 사랑이며,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바람이다. (디오티마)

= 이런 에로스 개념은 모든 형태의 욕망일반을 의미 ....고로 이 에로스의 개념에 따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야 한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3. 에로스의 정의 : 좋은 것을 늘 소유하려는 욕망

에로스는 특정한 종류의 사랑(성적인 관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디오티마 = 디오티마는 이런 용어 사용의 다른 예로서 '창작'이란 말로 설명.  
'창작'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창작'은 없었던 무엇을 있게끔 해주는 원인, 작용인에 해당되는 활동이다.**

- 모든 기술들의 산물은 창작물이며, 그 장본인은 창작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작'이라는 말을 좁혀서 **특정 분야의 기술에만**, 즉 시가와 운율에 관련된 활동에만 사용한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3. 에로스의 정의 : 좋은 것을 늘 소유하려는 욕망

에로스는 좋은 것들과 행복에 대한 모든 욕망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 목적[행복]에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 방식(성적인 접근)으로 나아가는 자들만 사랑하는 자라고 부른다.

디오티마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에로스 개념 부정 = 사랑은 자신의 반쪽을 찾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좋은 것 외에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디오티마는

'좋은 것에 대한 사랑'이 인간의 보편적인 바람임을 다시 확인한 다음  
'좋은 것에 대한 사랑'에 두 가지를 덧붙여서 에로스에 대한 정의를 확립한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3. 에로스의 정의 : 좋은 것을 늘 소유하려는 욕망

인간은 단순히 '좋은 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며,

② 단순히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기를 원한다.

**사랑은 좋은 것을 자기 자신 속에 언제나 갖고자 하는 욕망이다.**

“사랑은 좋은 것이 자신에게 늘 있음에 대한 것”이라는 이 규정은 중요하다.

디오티마는 이 정의로부터 “에로스는 불사에 대한 사랑”이라는 규정을 도출한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모든 사람은 육체적, 영혼의 임신을 하고 때가 이르면 **본성은 낳기를 욕망한다.**

- 추한 것 안에서는 낳을 수가 없고, 아름다운 것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임신과 출산은 신적인 것 = 可死者인 생물 안에 들어 있는 不死的인 것

= 조화하지 않는 것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추한 것은 신적인 것과 부조화하나 아름다운 것은 조화한다.

➡ 에로스의 목적이 '**좋은 것이 자신에게 늘 있는 것**'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류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사랑인가**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에로스가 추구하는 목적(행복)을 실현하는 방법

= '좋은 것을 늘 소유'하기 위해 에로스가 하는 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름다운 것 안에서의 생산(출산)'이다.

육체적 정신적인 측면의 임신과 출산은 인간 일반에게 보편적인 것이다.  
이 출산은 아름다운 것 속에서만 일어난다.

➡ 임신과 출산은 신적인 것이며, 가사자인 생물 안에 있는 불사적인 것이다.  
아름다운 것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조화를 이룰 때만이 출산이 가능하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1) 출산의 목적 : 불사의 소유

당신은, 자신들의 덕에 관한 불멸의 기억이 있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를 뒤따라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 .....아니다.

그들은 모두 불멸의 덕과 그런 영광스런 평판을 위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멸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1) 출산의 목적 : 불사의 소유

##### ① 에로스가 출산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출산 = 가사자(可死者)들이 불사(不死)에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이다.

디오티마 = 동물들의 생식 욕구와 자식 사랑을 인간의 명예욕을 불사에 대한 욕망과 연결시킨다.

모든 동물들은 생육을 위한 열병을 앓는다. 이를 위해 약한 자도 강한 자와 싸우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기도 한다.

= 불사를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파이드로스의 자기희생의 덕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2) 출산의 성격 : 재생산

##### ① 가사적인 것이 다 재생산 방식으로 보존

신적인 것처럼 모든 면에서 늘 같은 것으로 있음으로써가 아니라 늙어가고 떠나가는 것이 그것 자체의 원래 모습과 닮은 도 다른 새로운 것을 남겨 놓음으로써 보존된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2) 출산의 성격 : 재생산

② 가사자가 불사를 추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에 의한 방법이다.

출산(재생산)에 의한 방법은 원래 것이 늙어서 없어지고 대신 같은 종류의 새 것을 남겨 놓는 방식, 그런 점에서 출산에 의한 불사는 원래의 것이 그로 계속 남아 있는 신의 불사와 같지는 않다.

이런 신적인 불사는 에로스가 추구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실 앞서 디오티마가 에로스를 단순히 '좋은 것에 대한 사랑'으로 규정 하는 데서 더 나아가 '좋은 것을 언제나 소유하고자 함'으로 보충해서 규정했을 때 에로스가 추구하는 불사의 성격이 예비되어 있었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② 가사자가 불사를 추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에 의한 방법이다.

에로스 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소유하는 것'에서 '늘(영원히) 소유하는 것'으로 보충한 것은 어떤 것을 실제로 소유했다가 나중에 소유하지 못하게 됨을 전제할 때 의미가 있다. 고로 이 정의에 따르면 에로스가 추구하는 불사는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에로스가 추구하는 대상이 단순히 동경의 대상이 아닌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임은 '좋은 것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충해서 규정하는 데서 이미 마련되었다. 앞서, '아름다운 것(좋은 것) 대한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을 결여한,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아름다운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으로서의 에로스였으므로 '소유하는 것'으로 보충한 뜻은 단순한 희망 사항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의미가 있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③ 아테네인의 결혼에 관한 법 = 성적인 재생산을 법적으로 의무화

**“누구든지 서른에서 서른다섯 살 사이에 결혼은 의무**

그것이 인류가 본성상 불사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사람은 누구나 본래 불사를 욕망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이다.

죽은 후에 유명해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사에 대한 욕망, 후손을 뒤에 남김에 의해 하나이자 동일함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에 의한 불사에 참여.

**“종의 지속과 후속 세계의 기억에 의한 불멸에서, 더 나아가 혼이나 국가에 생산함에 의한 불멸을 덧붙인다.**

**이런 활동은 교육이며 우애를 생산하는 활동이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③ 아테네인의 결혼에 관한 법 = 성적인 재생산을 법적으로 의무화

같은 종류의 새것이 낡은 것을 대신하는 재생산의 방식은 개체가 개체를 낳아 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출산에 적용되는 방식일 뿐 아니라,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살아 있는 개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의 인식은 항상 변한다.**

일부는 새로이 생겨나고 일부는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인식과 관련해서 동일한 상태에 있지 않다. 망각은 앎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연습은 떠나가는 앎 대신에 새로운 앎을 다시 만들어 넣어 줌으로써 같은 앎으로 보일 정도로 앎을 보존하는 것이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3) 두 종류의 출산 : 육체와 영혼에서의 출산

디오티마는 육체적인 출산과 정신적인 출산을 구별한다,  
(파우사니아스의 범속의 에로스와 천상의 에로스 구별)

- 육체적인 임신을 한 자들은 육체적 사랑을 지향하며, 그래서 자식의 출산에 의한 방식으로 불사를 추구한다.
- 정신적인 임신을 한 자들은 **분별(phronēsis)**이나 **덕**을 자식으로 뒤에 남긴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3) 두 종류의 출산 : 육체와 영혼에서의 출산

##### ① 교육을 통한 출산

- ▶ 이런 덕들을 혼에 임신한 자는 나이가 차면 출산 하려는 욕망이 생기게 되어 아름다운 것을 찾아 다니게 된다. 요행히 아름답고 고상하며 잘 갖춘 채 태어난 혼을 겸비한 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덕에 관해서, 그리고 훌륭한 사람의 됬됨이와 해야 할 일들에 관한 이야깃거리)의 길이 열려서 이 사람을 가르치려 하게 된다.  
**그는 아름다운 자와 접촉하여 그와 사귀므로 자기가 오랫동안 임신해 온 것들을 낳는다.**  
**-언제 어디서나 그를 기억하며, 태어난 것을 그와 함께 기른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유대와 우애가 부모가 자식에 대해 갖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 아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불사적인 것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3) 두 종류의 출산 : 육체와 영혼에서의 출산

##### ① 교육을 통한 출산

디오티마 = 파우사니아스의 동성애 관계처럼 사랑하는 자가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아름다움을 함께 지닌 소년 애인에게 끌린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의 동기는 소년 애인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데로만 향하고 성적인 만족으로는 향하지 않는다.

- 소년 애인의 도덕적인 발전은 사랑하는 자가 소년 애인과 관계하여 정신적 자식을 생산함으로써 불사에 참여하는 수단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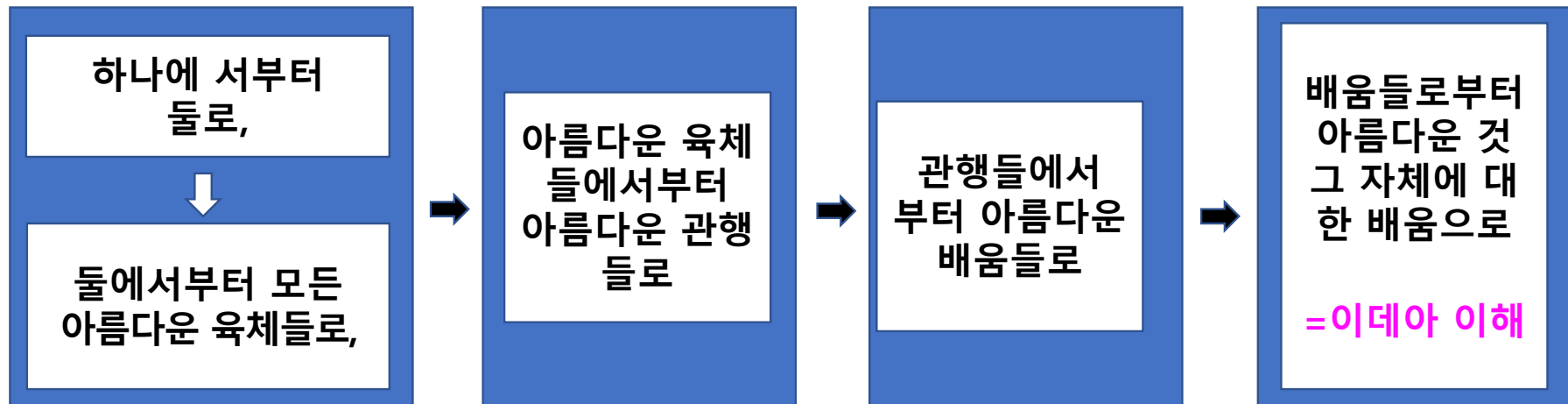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① 올바른 소년 사랑을 통해 저 아름다운 것을 직관하기 시작할 때가 끝점에 다다름

= 아름다운 것들에서부터 시작하여 더 아름다운 것을 목표로 늘 올라가는 것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플라톤 = “감각은 인간을 속이는 것이며, 이념(idea)이 믿을 만한 것이다.”  
Socrates (Platon) = 本質주의 (essentialism).

본질 本質 Essence	현상 現象 appearances
진짜로 있는 것 What really exists beyond,	실제로는 없는데 혹은 중요하지 않은데 무지, 속임수, 착각 등으로 인해 진짜로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 .
理性的 推論 의 대상 logos	感覺 • 感情 의 대상 aisthesis
實體 Substance 原質 Archē, Arkē, Urstoff, 存在 (있음 ) Being, Existence, Existenz 實在 - Reality	비본질적 , 부차적 , 가변적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서양 철학사를 지배하는 개념들의 이원적 도식

기하학적 형상	기하학적 대상물체
본체 noumena 실체 substance 실재 實在 reality 보편 universal 개념 concept	현상 phenomena 현상 phenomena 현상 現像 appearance 개체 particular 사물 things
이데아 idea 가지계/ 예지계 叡智界 intelligible world 가사계 可思界 cosmos noetos	그림자 shadow 감각계 感覺界 sensible world 가시계 可視界 cosmos horatos
동굴 밖 cave outside 빛 light 영혼 soul 정신 mind	동굴 안 cave inside 암흑 darkness 육체 flesh 물체 matter
주어 主語 subject 주관 subject	술어 述語 predicate 객관 object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서양 철학사를 지배하는 개념들의 이원적 도식

일차성질 primary quality	이차성질 secondary quality
<b>오성</b> 悟性 <b>understanding</b> 이성 reason 선험 先驗 transcendental 선천 先天 a priori 실체 實體 substance 형상 形相 eidos, form 형식 form	감성 感性 sensation, perception 경험 experience 후험 後驗 emperical 후천 後天 a posteriori 속성 屬性 attribute 질료 質料 hyle, matter 내용 content
하나님 God 천사 angel <b>천상</b> the Kingdom of Heaven <b>하나님나라</b> the Kingdom of God	인간 Men 악마 devil <b>지상</b> this World <b>인간세상</b> human world
초자연 supernatural 성 聖 the sacred	자연 Nature 속 俗 the secular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 ② 최의 비의가 보이는 단계적 상승

‘최고 비의’(ta telea kia epoptika) =

‘최고 비의’가 보여주는 단계적 상승은 혼에서의 출산을 도모하는 자들이 거치는 지적인 성숙과정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 단계적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능력과 자질이 필요함으로 혼에서의 출산을 도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될 것이며, 최고의 경지까지 이를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은 소수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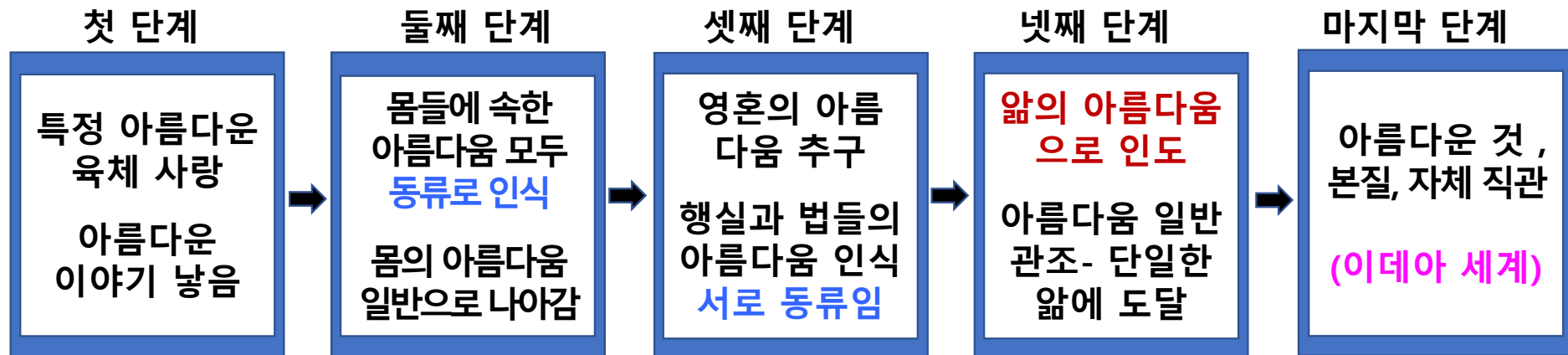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③ 상승단계 = 육체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개별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상승

#### 단계들 간의 상승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 아름다운 것의 자체

- = 영속적인 존재,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의해 분유
- = 증감을 겪지 않고, 관점, 시간, 장소, 관계, 관찰자 등에 차이도 없고
- = 비 물체적이며, 가시적인 세상 사물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 = 이야기나 앎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단일 형상을 가진 것으로 있는 것

아름다운 것 자체를 직관하게 되면 진짜 덕을 낳고 기르게 되어 신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불사자가 된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 가. 개별 육체의 아름다움

처음에는 이끄는 자가 올바르게 이끌 경우 그는 하나의 육체를 사랑하고(eran) 그것 속에서 아름다운 담론들(kaloi logoi)이 생기게 해야 한다.

사랑하는 자의 상승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에서 시작한다. 출산의 욕망을 일깨우는 아름다움이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 나. 육체 일반의 보편적 아름다움

- ▶ 다음에 어느 한 육체에 속한 아름다움이 다른 육체에 속한 아름다움과 동종(同種)임을 깨달아야 하며, 종에 속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할 때, **모든 육체들에 속한 아름다움이 하나요 같은 것이라고** 깨달아야 한다.

이걸 파악하여, 모든 아름다운 육체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의 육체에 대한 이 열정을(무시하고 사소하다 여김으로)느슨하게 만들어야 한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 나. 육체 일반의 보편적 아름다움

- ➡ 다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육체들의 아름다움은 같다는 것을 인지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하나의 육체만 사랑하지 않고, 모든 아름다운 육체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한다.

디오티마 = 이 아름다움이 가시적인 형태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한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는 아름다운 것 속에서 출산하려는 욕망 보다 선행.)

사랑하는 자의 상승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여러 사물들에 있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인지하고 선호하도록 한다. 실로 에로스는 애지자(philosopher)이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 다. 혼의 아름다움

- ▶ 다음에는 육체에 있는 아름다움보다 혼들에 있는 아름다움이 더 귀중하다고 여겨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미미한 [아름다움의] 꽃을 갖고 있더라도 영혼이 훌륭하다면 그에게는 충분하며 [이 자를] 사랑하고 신경 써주며 (젊은이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어 줄) 그런 담론들을 낳고 추구해야 한다.
- ▶ 사랑하는 자는 육체적 아름다움 이상으로 혼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한다. 그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은 아름다운 육체와 훌륭한 영혼(정신)의 합치다. 이 단계는 개별적인 영혼의 아름다움에 반응하는 단계다. (소년 애인을 보살피고 교육)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 라. 법과 관행의 아름다움

- ▶ 이번에는 그가 관행들과 법들에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서로 서로 친족적(syngenes)이라는 것을 알게 되도록 강제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육체에 관련된 아름다움이 사소한 어떤 것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 ▶ **혼의 아름다움에서 법과 관행의 아름다움으로 상승은 지척이다.**  
양자의 아름다움은 종류가 같기 때문이다. 품성과 습관은 그것들이 좋은 것인 한 미적인 요소를 표출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아름다움은 하찮게 여기게 된다고 그녀는 말한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 마. 지식의 아름다움

- ▶ [이끄는 자는 그를] 관행들 다음으로 지식들로 이끌게 되면 그가 지식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이제는 아름다움 여럿을 바라보고 있기에, 더 이상 어린 소년이나 특정인간이나 하나의 제도의 아름다움에 흡족해 함으로써, 하나에게 있는 아름다움에 노예처럼 종 노릇 하면서 미천하고 하찮은 자가 되지 않는다.
- ▶ 오히려 아름다움의 큰 바다로 향하게 되고 그것을 관조함으로써, 많은 아름답고 격조 높은 담론들과 사유들을 아낌없는 지혜사랑 속에 넣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거기서 힘을 얻고 자라나서 어떤 단일한 앎을, 즉 다음과 같은 아름다움에 한 앎을 직관하게 된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 마. 지식의 아름다움

➡ **이데아인 아름다움 자체 =**  
육체와 혼에 속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이 아름다움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지식의 아름다움을 인지한다는 것은 그런 보편적인 지식에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한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 바. 아름다움 자체로의 상승

- ➡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 아름다운 것들을 차례차례 올바로 바라보면서, 에로스의 일들에 대해 여기까지 인도된 자
  - = 에로스의 일들의 끝점에 도달하여 갑자기 본성상 놀랍고 아름다운 어떤 것을 직관하게 된다. = 앞서의 모든 고통들의 최종 목표
- ➡ **마지막 목표 = 아름다움 그 자체**
  - 생성과 변화로부터 자유롭고 영원하며 단순함과 위엄에서 절대적이다
  - = **아름다움 자체가 최종 목표인 것은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
  - = **이와 함께 하는 삶에서만 참된 것을 낳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참된 덕을 낳아기를 때 신이 친애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불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 바. 아름다움 자체로의 상승

- ▶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같은 뜻으로 사용  
아름다움 자체 = 좋음 자체, = 좋은 것은 이데아이다.  
이것은 인식될 수 있는 것이며, 추론과 변론에 의해 파악되며 다른 이데아들과 구별된다.
- ▶ 좋은 것의 이데아와 가시적인 세계와의 관계는 해와 가시적인 세계와의 관계와 같다. 해는 빛의 원천이다.  
이 빛에 의해서 눈은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고 사물들은 보일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러하듯이 좋은 것은 진리의 원천이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 바. 아름다움 자체로의 상승

##### ➡ 아름다움의 이데아

디오티마 = 아름다움 자체를 “신적이며 단일 형상인 아름다운 것 자체”, “순수하고 정결하고 섞이지 않은 아름다운 것 자체”라고 표현한다.

**이 아름다움 자체는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이다.**

##### ➡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욕망의 종점이다.

사람들의 모든 욕구적 삶은 아름다움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가하면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지식의 종점이기도 하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 바. 아름다움 자체로의 상승

이 진리의 빛에 의해서 혼은 인식 능력을 갖게 되고 인식의 상은 인식 가능한 것이 된다.

좋음의 이데아는 [향연]에서 아름다움의 이데아처럼 지식의 궁극적 원리이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 바. 아름다움 자체로의 상승

#### ➡ 아름다움 자체(이데아)의 성격

- ㄱ. 불변성 : 아름다움 자체는 생겨나거나 없어지고,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ㄴ. 순수성 : 아름다움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도 자신과 독립적인 성질(추함)을 갖지 않는다. (여기서는 아름다운데 저기 에서는 추한 것도 아님)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 바. 아름다움 자체로의 상승

#### ➡ 아름다움 자체(이데아)와 사물 간의 관계 : 분리와 관여

아름다움 자체는 육체의 일부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담론이나 지식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다른 어떤 것 안에(동물, 땅, 하늘)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 늘 단일 형상으로 있는 것이다.

생성 소멸하는 다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그것에 관여하지만 그것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다.

##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

### 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 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 바. 아름다움 자체로의 상승

- ▶ 참으로 있는 형상(이데아)은 공간 속에 있을 수 없다. - 플라톤  
이데아는 외부에서 어떤 것도 자신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다른 어떤 것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다.

자체는 그 자체로만 늘 단일하게 존재한다.

다른 아름다운 사물들은 그것을 분유(分有)함에 의해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름다움 자체의 모상(模像)들이다.

- 변전하는 현실세계 및 그 대상들은 영원한 이데아의 모상(模像)이다.

•펭귄의 자식사랑 <https://www.youtube.com/watch?v=19SujIXw5D0>

•13 가시고기

<https://www.youtube.com/watch?v=J9g-SBFXIl0>